

예방주사 한번 맞으실래요?



얼마 전 취재 차 한글과컴퓨터를 방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회의실로 보이는 곳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채용 면접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독감 예방주사 접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기자에게도 예방 접종을 하고 가라고 하는 것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회사의 구성원들이 독감에 걸리면 아무래도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가능성도 있구요. 결국 회사 전체의 능률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독감예방 접종을 하는 기업이 한컴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때 어려움을 겪었던 한컴이 다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직원들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요. <수>

구글의 찝찝한 첫인상



구글이 드디어 한국시장에 상륙했습니다. 이미 한국서 일부 인력이 꾸려져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지난달 구글 중역의 방한이 사실상 국내 시장 진출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구글은 예상대로 M&A센터 설립이라는 달콤한 선물 꾸러미를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웬 걸? 포장만 그럴싸했을 뿐 빈 수레였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구글의 앨런 유스티스 부사장은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밝힐 수 없고, 이 역시 때가 되면 밝히겠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현재 구글의 국내시장 진출로 국내 포털업체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글의 태도를 보면 그리 겁먹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스티스 부사장의 말을 분석해보면 '큰 돈'이 되지 않는 한 국내 시장에 집중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구글 얘기를 하다 보니 한 때 국내는 물론 세계 포털시장을 호령했던 모 포털업체 관계자의 얘기가 떠오르는군요. "한국시장에 진출했을 땐 다 잘될 것이라 생각하고 처음엔 정말 잘 나갔죠. 하지만 이후 한국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구글요?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 한 (한국시장 공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석>